

# “죄 씻고 복 지어 성불의 길 닦으리”

## 불교문화 체험기행

등명낙가사·삼화사·정암사 3사 순례

**유** 모차에 갓난아이를 태운 가족, 엄마 손을 잡고 나온 초등학생, 다양한 연인들과 손을 맞잡은 노부부 등 불교문화체험기행단은 11일 밤 10시 정동쪽을 향해 출발했다.

이들을 가르쳐 안개비가 내리는 대관령을 넘어 기행단이 처음 도착한 곳은 강릉시 정동진리에 위치한 등명낙가사(주지 청우), 태백산의 동쪽 정동(正東)에 위치한 등명낙가사는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처음은 수다사라고 하였으며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에 왜침을 막고자 수증보궁을 세웠다고 전한다. 일출 2시간 전, 등명낙가사에 도착한

드러난다.

이어 기행단이 찾아간 곳은 '모래시계'로 널리 알려진 정동진역, 경북공에서 정동쪽에 위치한 정동진역(해돋이역)은 동해의 푸른 바다를 끼고 있는 영동선의 한 간이역으로 일명 '고원정 소나무'라 불리는 소나무와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잔뜩 긴 비구름으로 일출은 볼 수 없었으나 푸른 파도에 그동안 지든 삼독이 씻겨 내리는 듯 했다.

"물에 자주 다닌다고 불자가 아닙니다. 불자라면 참선 열반 간경 주려중 한가지라도 열심히 익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등명낙가사 청자 오백나한 친견 통일 발원

삼화사 예수재 동참 "번뇌집착 훌훌 벗자"

정암사 보궁·수마노탑 참배 국난극복 다짐

기행단은 옷깃을 여미고 영산전을 찾았다. 청자로 만든 5백나한상이 맞아주는 가운데 먼저 삼배를 올린 일행들은 계속 해 절을 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참선정진에 들었다. 법당에 자리를 잡지 못한 일행들은 푸른 동해바다를 등진 채 처마 밑에 삼삼오오 모여 부처님을 향해 합掌례를 올리며 예배시간을 기다렸다. 3사 순례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똑뜨르 똑뜨르... 도랑식으로 아침 예불이 시작됐다. 범종타종에 이어 기행단들이 한 목소리로 올린 새벽예불은 괘방산 골짜기를 따라 울려 퍼졌다. 새벽에 불이 끝날 즈음 어둠의 베일속에 깔려 있던 경내의 웅장한 풍경이 하나 둘씩

해아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질문할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지의 합력이며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그렇지 않은 불자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진하십시오."

낙가사 주지 청우스님의 법문을 되새기며 일행은 두타산 순화사로 발길을 옮겼다.

**‘세** 나라를 하나로 화합시킨 절'이라는 뜻을 지닌 삼화사(주지 안행), 불교화합, 지역 화합, 남북화합 이렇게 세 화합을 기원하며 넓은 담반위를 힘차게 흐르는 푸른계곡을 거슬러 약 20분 올라가 삼화사에



삼화사 생전에수재 회향식에 동참한 불교문화체험기행단. 삼화사 신도들과 함께 다리를 걸고 빙돌이를 하며 새 삶을 발원했다.



정암사 수마노탑 전경.



등명낙가사에서 새벽예불을 마친 후 주지 청우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고있는 불교문화 체험기행단.



국태민안을 위해 건립됐다는 정암사 수마노탑 앞에서 체험기행단은 국난극복을 기원했다.

다다랐다. 불상조성기가 새로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칠불이 모셔져 있는 대웅전에서 생전에 수재 및 영가천도 49일 지장기도 회향법회가 엄숙하게 열리고 있다.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삼화사 칠불은 지난해 5월 약사전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1백50여개의 명문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통일신라시대 노사나불모 재작사기가 확인된 칠불의 상호에서는 지혜로움과 인자함이 느껴지는데 현재 국보심의중이다.



○ 지난해 5월 1백50여개의 명문이 발견된 삼화사 칠불. 통일신라시대의 노사나불모가 확인된 현재 국보심의중이다.

인심이 후덕하다는 강원불자들과 시련 극복이온 소정 등 예수재를 함께한 기행단은 유주무주 고혼천도 및 업장소멸을 발원했다. 다라니경을 머리에 이고 삼층석탑(보물 제1227호)을 도는 일행들의 모습은 한창의 열정까지도 소멸해 허러는 듯 간절하다. 또 법회장에 마련된 경제난 극복과 실직자들을 위한 모금행사에도 참여해 국난극복의 열의도 실감케 했다.

이날 법회에서 삼화사 주지 안행스님은 "바른 믿음을 얻는 바른 공덕을 쌓을 수 없다"며 "온갖 집착과 망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뉘우치고 선명을 다짐하는 참회를 해 우리 모두 무량공덕을 쌓자"고 설법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정골사리가 봉안돼 있어 5대 직방보궁중 하나인 정암사(주지 화관), 대웅전에 불상을 봉안하지 않고 불단만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연기념물 열매가 사는 곳으로 그 맑고 깨끗함을 짐작할 수 있는 정암사는 수마노탑이란 특이한 석재로 된 탑이 있다. 지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온 마노석으로 만든 탑으로 높이가

9m에 이르는 칠층모전석탑으로 탑정체가 길이 30~40cm, 두께 5~7cm 크기의 화백 마노석으로 정교하게 쌓여졌다.

정암이 없고 나라의 백성이 복되게 살기를 기원해 세워졌다는 수마노탑 앞에서 일행들은 연신 절을 올린다. 부처님의 가피와 하나인 불심으로 경제난 등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발원했다.

3사순례를 마치고 귀경하는 기행단의 얼굴에는 환희심과 뿌듯함이 가득 차 있었다.

글=김종근 기자(gsmj@buddho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opia.com)

### ■ 윤달 불교풍속 '예수재' 내생과보 미리 닦는 의식 참회 통해 재발심

불교계의 대표적 윤달 풍속으로 생전에수재(生前祈願齋)를 지내는 사람이 많다.

생전에수재는 글자 그대로 생전에 다음생에 받을 과보를 미리 닦는 의식이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하고 청정하게 공법을 배워 모든 중생을 부처님 공으로 인도하겠다는 자기 다짐의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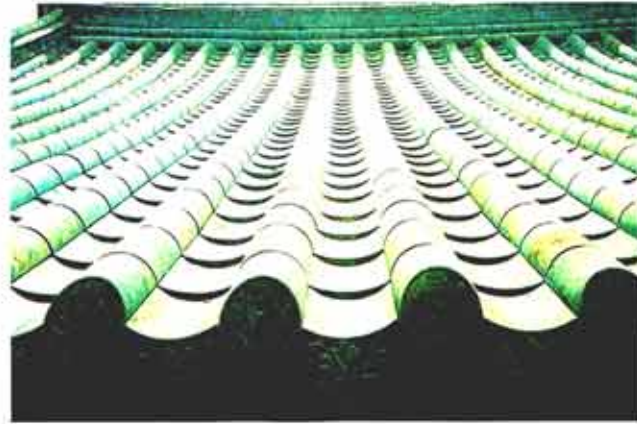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예수재를 지낸 공덕은 몸에 푸른 한알의 씨앗이 가을에 천만개의 씨앗을 거두는 것과 같다"고 설했다. 예수재를 지냄으로써 10가지의 공덕이 있다고 전해진다. 가난을 달하고 배고픔을 면하며 조상이 극락왕생하고 수명이 늘어나며 몸이 건강해진다고 한다.

너무나 한번씩 돌아오는 윤달에 예수재를 지내는 근본적 이유는 '원래 없었던 시간을 얻으로 받았으니 현타이 쓰지 말고 선업을 쌓는 기회로 삼으라'는 교훈이 들어있는 것이다.

예수재를 지냈으니 죄업이 다 씻겼다고 자신 만만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수재는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를 통해 진정한 불자의 길을 가겠다고 재발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장한장에 혼을 넣어 장민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 기와발사는 청동주물기와로 시작하십시오.

## 청동주물기와 600여년만에 복원성공!



특허출원 제 15145호  
실용신안등록 제 119053호  
의장등록출원 제 15785호

KBS 1TV 「체험 삶의 현장」  
96년 9월 9일 방영

10개 공사 환청 특별시공합니다.

평당 ₩640,000

◎ 함께 일할분을 모십니다. ◎

- 전국대리점 모집(각도별)
- 수출 및 무역, 사업에 동참하실 분
- 사업설명회: 1998년 7월 25일 (오후 2시)
- 정 소: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295번지

우영기업

본사: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295  
주물사업부: (02)473-1958  
인테리어사업부: (02)482-3587  
FAX: (02)474-1550

http://www.wooyong.co.kr/

### ■ 내구성 및 경제성

재래식기와의 무게중량(평당 80~100kg)과 맞은 무게 및 부식으로 건축수명이 단축됨을 청동주물기 구조에 의해 20~30%로 증감됨을 대폭 감소 하였으며, 한년을 보정할 수 있도록 구리, 주, 아연을 함유하여 만들었습니다.

### ■ 방수성

점도, 탄도, 강도를 종합하여 건조기 시공하여 기와 시공시 1mm의 빈틈도 허용되지 않고 파손을 가급적 방지하여 100%방수를 지시합니다.

### ■ 미관성

청동주물기의 장점은 수천년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추상을 풍기어 왔으며 청동주물기에도 세월과 함께 고운색을 더해져서 변하지 않는 빛깔을 자랑하며 무지개 색상 및 건축물보다 더욱 깊은 감정으로 다가서게 할 것입니다.

### ■ 연구성

청동주물기의 수명은 수천년전에 사용하던 유물들이 밀려서 현행 그대로 보존되어 출토되었던 연구자료의 건축물노력으로 인한 재시공시에도 100% 부사함입니다.

### 주요시공내역

- 1986년 80이세간제인 이동성교회 제작
- 1988년 88동원리, 통일대중교각, 주교
- 1985~1996년 광주, 전주, 청주, 예수, 권국대전 성화대교각 청동주물기 제작
- 1992~1996년 일본아이치비 켈리의 청동주물기 공예품, 납품
- 1995년 3월 경남 함안 안평문중 제각 청동주물기와 시공
- 1995년 10월 서울 삼각산 삼각사, 대웅전 청동주물기와 시공
- 1995년 5월 전남 곡천사에 경주 황룡사 유실품 복원 시공
- 1996년 3월 부산 범어사 (철전암) 대웅전 청동주물기와 시공
- 1996년 5월 LG그룹 구세문중제각 청동주물기와 시공
- 1997년 정동 영각사 대웅전 시공. (그외 다수 시공중)

● 명칭 ●